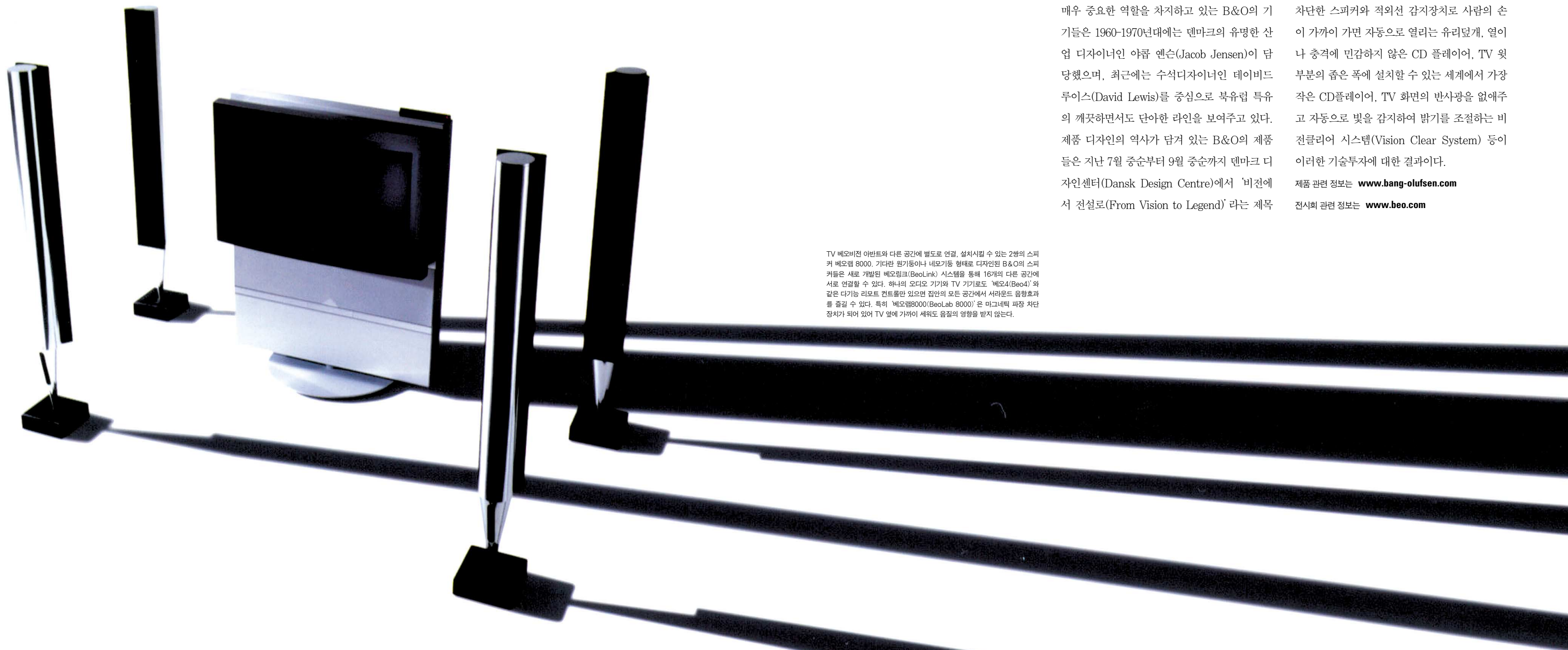


소리의 시각화

뱅앤올룹슨



TV 베오버전 아반트와 다른 공간에 별도로 연결, 설치시킬 수 있는 2쌍의 스피커 베오랩 8000. 기다란 원기둥이나 네모기둥 형태로 디자인된 B&O의 스피커들은 새로 개발된 베오링크(BeoLink) 시스템을 통해 16개의 다른 공간에서로 연결할 수 있다. 하나의 오디오 기기와 TV 기기로도 '베오4(Beo4)'와 같은 다기능 리모트 컨트롤만 있으면 집안의 모든 공간에서 서라운드 음향효과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베오랩8000'(BeoLab 8000)'은 마그네틱 파장 차단 장치가 되어 TV 옆에 가까이 세워도 음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깔끔하고 세련된 형태의 오디오, TV 등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대명사가 된 뱅앤올룹슨(Bang & Olufsen; 이하 B&O)은 음악 애호가들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특히 선호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1925년 전기 기술을 전공한 피터 보아스 뱅(Peter Boas Bang, 1900년 생)과 스벤드 안드레아스 그뢰 올룹슨(Svend Andreas Grøu Olufsen)이 당시 개발되기 시작한 라디오 수신기를 공동으로 만들어내면서 창립, 올해로 75주년을 맞았다.

덴마크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B&O의 기기들은 1960~1970년대에는 덴마크의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인 야콥 옌슨(Jacob Jensen)이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수석디자이너인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를 중심으로 북유럽 특유의 깨끗하면서도 단아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제품 디자인의 역사가 담겨 있는 B&O의 제품들은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덴마크 디자인센터(Dansk Design Centre)에서 '비전에서 전설로(From Vision to Legend)'라는 제목

으로 디자인 회고전을 열었다(같은 제목으로 B&O의 디자인 역사를 담은 도록을 펴내기도 했다).

'단순한 형태 뒤에 숨은 뛰어난 기술'로 표현되는 B&O 제품 디자인은 '기능적인 디자인, 최고의 기술, 편리한 사용'이라는 회사의 철학이 압축되어 있으며, 깔끔하고 세련된 형태 뒤에는 음향이나 색채, 조명 전문가들과 여러 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담고 있어 더욱 그 디자인의 격을 높여주고 있다.

TV 옆에 가까이 세워도 되는 마그네틱 파장을 차단한 스피커와 적외선 감지장치로 사람의 손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덮개, 열이나 충격에 민감하지 않은 CD 플레이어, TV 뒷부분의 좁은 폭에 설치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CD플레이어, TV 화면의 반사광을 없애주고 자동으로 빛을 감지하여 밝기를 조절하는 비전클리어 시스템(Vision Clear System) 등이 이러한 기술투자에 대한 결과이다.

제품 관련 정보는 www.bang-olufsen.com

전시회 관련 정보는 www.beo.com



CD 플레이어 베오사운드 9000과 스피커 베오렘 4000

6배 CD 교환 플레이어 '베오사운드 9000'. 6개의 CD가 유리판 뒤에 나란히 놓여 있어 CD에 인쇄된 그래픽이 하나의 그림으로 어울린다.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는데, CD가 놓인 위치가 원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CD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 외에 유리판 아래 첩을 따라 움직이는 CD-헤드는 어느 위치에 있는 CD라도 5.7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곡명을 찾을 수 있다. 200개 정도의 곡명을 입력할 수 있는 베오사운드 9000은 CD를 넣는 순간 미리 프로그램된 정보에 따라 원하는 곡을 찾아낼 수도 있으며, 6개의 CD에서 12시간 동안이나 무작위 순으로 곡을 연계하여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입력되어 있다. 또한 CD 플레이어 기능 외에 60개의 라디오 채널을 주파수와 이름으로 입력할 수 있는 라디오가 들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위, 아래를 바꿀 수 있는 매뉴얼판 덕분에 장식장 위에 수평으로 놓이거나 벽에 거는 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위치와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Bang & Olufsen : Sound and Visualization

In 1925, Bang and Olufsen (B&O) was founded by the two co-creator of radio receiver; electric engineer Peter Boas Bang(born in 1900) and Svend Andreas Grøu Olufsen.This year this Danish acoustics manufacturer marks its 75th anniversary, celebrating its internationally-acclaimed success in producing high quality lines of audio, TV, and various home entertainment electronics as well as setting a standard in the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B&O design has been led by the Danish industrial designer Jacob Jensen during the 1960-70s. Today the company continues its tradition of nordic clarity and reduced styl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designer David Lewis. B&O opened "From Vision to Legend", a retrospective design exhibition held from mid-July to mid September at Dansk Design Centre. The exhibition is accompanied by an exhibition catalogue which includes the history of the B&O products in the past. Related product informations can be found at the company's website www.bang-olufsen.com ; additional exhibition information at www.beo.com. 



베오사운드 센추리(BeoSound Century). CD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라디오, 스피커가 일체화된 오디오 세트



1

디지털 카메라는 태생적으로 매우 작고 경제적인 제품이다. 보통 사진 필름 1통을 현상했을 경우 정말 좋은 사진은 몇 장 되지 않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사진이 찍히는 순간의 상태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필름 및 인화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펜티엄 II급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문서작성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보아 낭비이듯이 디지털 카메라도 전문가용과 일반용 등 그 쓰임이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 다른데, 무조건 많은 기능과 저장 용량이 큰 제품보다는 사용하기에, 가지고 다니기에 간편한 제품이 선호된다.

현재 시판되는 일반용 디지털 카메라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제품은 캐논(Canon)의 익수스(Ixus) 디지털 카메라. 담배 1갑 정도 크기의 이 카메라는 독립된 디지털 카메라로서는 현재 가장 작은 크기(87×57×26,9mm)로 배터리를 제외한 카메라 무게는 190g 정도이며 목에 걸고 다녀도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다.

카메라 산업이 유럽 주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10여 년 전부터 카메라의 소형화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는 일반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모두 강화된 기능과 소형화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익수스 시리즈는 콤팩트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iF 디자인상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 디자인상을 받았고 유럽 이미지와 사운드협회인 EISA(European Imaging & Sound Association)에서 '올해의 유럽 APS 카메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www.digital-ix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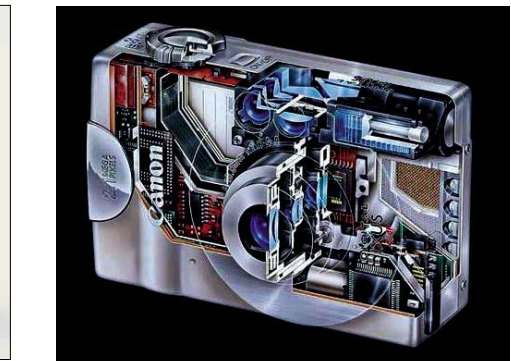


2

1, 3. 캐논 익수스 디지털 카메라. 밀리언픽셀에 2배 줌 렌즈, 저장량 8MB(CF 카드)의 성능을 지닌 익수스 디지털은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을 1/2.7인치 크기의 CCD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USB 포트로 컴퓨터에 전송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비디오 포트, 콤팩트 플래시 타입의 포트가 있으며 35-70mm 줌 렌즈는 3군데로 나누어 측정 사진을 알맞은 밝기로 만들어 준다. 배터리를 제외한 카메라 무게는 190g 정도로 목에 걸고 다녀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점이 특징이다.

2. 익수스 디지털 카메라의 뒷면. 보통 AF-줌 카메라인 Z70

4. 익수스 내부 구조 투시도



4

Super Mini in Size, Perfect Function - Canon Ixus Digital Camera

Size of a cigarette pack, Canon's Ixus is the smallest digital camera in the market today. Excluding the world's smallest battery of 87x57x26.9mm, the camera weighs only 190g, an ignorably light that can be carried at the user's neck. With its built-in automatic image control function for individual shots, users can avoid wasting a whole roll of film and print papers to get only a few quality images.

As the camera industry's technological lead has been shifted from Europe to Japan about a decade ago, the size war in the industry has accelerated at its full speed, thanks to the recent mobile trend in electronics. Boasting its compact and minimal look, Ixus series have been awarded worldwide, including iF Design Award and Europe's APS Camera of the Year Award from the European Imaging & Sound Association.

www.digital-ixus.com 

최소 크기, 최대 성능

캐논 디지털 카메라

TV에 개성을 붙여 넣는다

히타치 TV



큐브형 TV(C15-GB1),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그린, 블루, 옐로우 3색으로 디자인 된 퍼스널 TV



무엇일까?

37×35×38cm의 네모난 박스처럼 보

이는 이 물건이 지난 9월에 출시된 히타치 (Hitachi)의 큐브형 TV이다. 최근 연령층을 막론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 범위는 TV를 비롯한 AV기기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브라운 가전이 대부분 그러하듯 TV 또한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타치의 큐브스타일 TV는 형태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어느 장소에나 쉽게 어울릴 수 있고,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컬러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 TV와는 달리 파스텔 톤(Frost Green, Frost Blue, Frost Yellow)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다.

이 제품은 가전제품이라기 보다는 개인용 (personal). 이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 단

생이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이 발달한 일본인에게 TV는 가전 제품이기 보다는 한 개인의 오락기기의 일부로 인식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CF 음량다운 기능, 게임타이머(게임의 경과시간을 30분 간격으로 표시하는 기능), 게임 환경에 적합한 밝기로 자동 변환되는 버튼(리모콘의 게임버튼을 누르면 입력화면이 게임에 적절한 밝기로 자동 설정되는 기능)을 채용하는 등 독특하고 세세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반적으로 거실에 두는 TV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를 갖는다. 먼저, 부드럽고 가



av.hitachi.co.jp

글 | 박신영(본지 일본 통신원)

벼운 이미지를 표현하

기 위하여 파스텔 컬러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작게 보이기 위해 TV의 윗면을 사선처리하였던 것에 반해 평평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실용적인 장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력변환 버튼을 장착하여 불필요한 전력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었다.

오마치 아키라(Akira Omachi) _ 1981년 히타치 제작소에 입사. 디자인연구소 제품디자인부 소속 주임 디자이너이며, 현재 TV, 액정프로젝터 등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히타치 디자인연구소 _ 가전제품의 디자인을 담당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되어, 1988년에는 가전사업본부 소속에서 사장 직속의 연구소로 이동하였다. 현재는 가전제품 뿐만이 아닌 히타치 그룹 전반의 디자인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히타치 디자인연구소는 크게 디자인 제품분야 와 디자인 기술분야 로 나뉘어지는데, 디자인 제품분야에서는 정보, 통신기와 공동 의료산업기기, 가전제품 등을 디자인하며, 디자인 기술분야에서는 기계디자인과 화면디자인, 정보표현, 전달방법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89년에는 최신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도쿄 아오야마(青山)에 'FEEL'이라는 사무실을 열었다. 일본 외에도 밀라노에 유럽 R&D 센터를, 샌디에고와 런던에 해외 디자인실을 두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An Inspiration for a Different TV : Hitachi Television

The box-shaped cubic television of 37x25x28cm was released last September from Hitachi. Regardless of age groups, the recent hype in interior design pushed its barriers to the realm of home electronics such as televisions and audio visual appliances. In response to the conventional boring and brownish image of home television sets, Hitachi's new cube-style TV is designed to accommodate various interior looks and offer designed image. Thanks to it new pastel-tone color ranges, including frost green, frost blue, frost yellow, it successfully transcends the softened look than ever.